

미국의 냉전 구도와 라틴아메리카 탈식민적 정책노선의 대립

김은중

올해 4월 14~15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될 미주기구(OAS) 정상회담이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힘겨루기 무대가 되고 있다. 미국은 쿠바가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이 남미의 악성 좌파 트라이앵글로 지목한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가 정상회담을 보이콧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쿠바혁명을 계기로 1962년 미주기구 회원국 자격을 박탈당했다가 2009년 회원 자격을 회복한 쿠바가 미국의 영

향력 아래 있는 미주기구에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쿠바를 자극하는 것은 라틴아메리카를 여전히 냉전 구도 속에 두려는 속셈 때문이다. 미국은 판세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양면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직접적인 대결 방식을 피해 한쪽에서는 회담의 호스트이자 아군인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콜롬비아 대통령을 쿠바로 보내 자신의 뜻을 우회적으로 라울 카스트로(Raúl Castro) 쿠바 대통령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부통령이 지정학적 요충지인 멕시코와 온두라스를 순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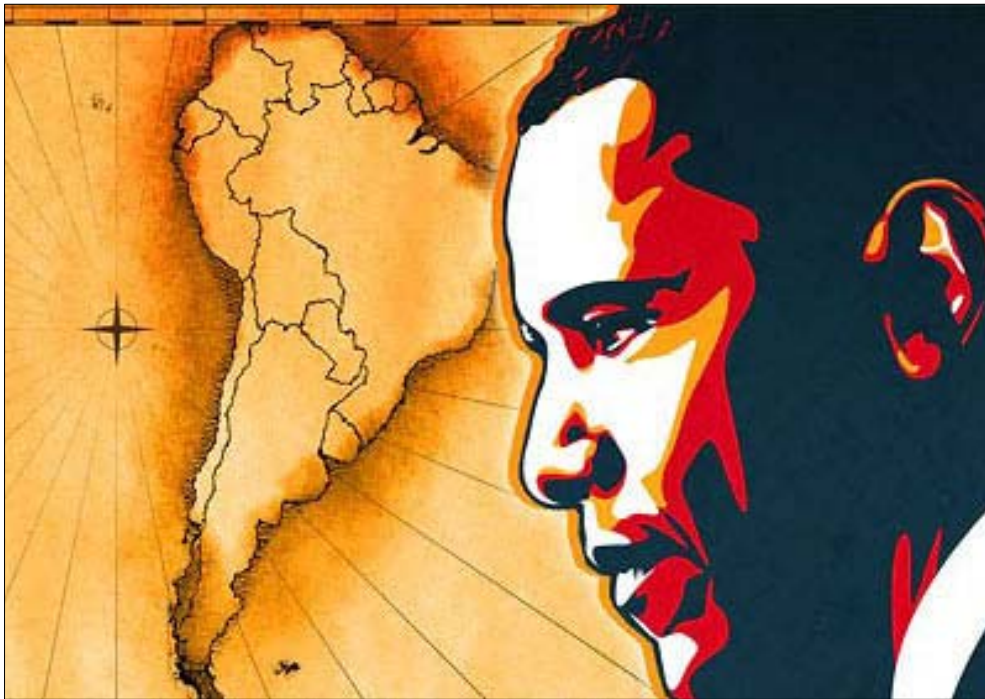
멕시코를 방문한 조셉 바이든은 7월 1일 치러질 총선 후보들(PRD의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PRI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 PAN의 호세피나 바스케스)을 차례로 만나 “멕시코 차기 대통령과 돈독한 동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펠리페 칼데론(Felipe Calderón)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지난 5년 동안의 마약 카르텔이 중심이 된 조직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지 의사를 밝혔다. 온두라스로 이동한 바이든은 포르피리오 로보(Porfirio Lobo) 대통령과 코스타리카의 라우라 친치야(Laura Chinchilla)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마약을 합법화하는 오토 페레스(Otto Pérez) 과테말라 대통령의 제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페레스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이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미를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지역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평소에 쿠바 경제제재 완화와 라틴아메리카 정상들과의 대화를 주장해온 백악관의 라틴아메리카 외교정책 담당관인 댄 레스트레포(Dan Restrepo)는 미국은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안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마약의 합법화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 취임식에서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국가 간의 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오바마의 발언은 부시(George W. Bush) 정권 시절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일관되게 밀어붙였던 하드 파워(hard power)정책을 포기하고 선린외교를 펼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2012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오바마의 대 라틴아메리카 정책 기조는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9년 4월 트리니다드 이 토바고에서 개최된 미주정상회담에서 쿠바에 대한 유화정책(쿠바방문 허용과 송금제한 조치 철폐)을 내놓았던 미국이 “미주의 실천, 목표,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내세워 올해 열릴 정상회담에 쿠바가 참석하는 것을 문제 삼고 나오면서 미주 대륙을 여전히 냉전 이데올로기가 존속하는 지역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미국은 마누엘 셀라야(Manuel Selaya) 정부를 전복시킨 온두라스 군부 쿠데타를 슬그머니 인정하고 콜롬비아와



오바마와 라틴아메리카

는 7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온두라스 사태를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정치적 사태로 몰고 가 온두라스 정부에 원조기금을 제공함으로써 중미에 반미 감정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한 것이다. 또한 에콰도르가 미군이 주둔했던 만타 기지협정을 철회함으로써 미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남미의 거점인 콜롬비아에 군사기지를 설치한 것이다.

미국과 라틴아메리카는 대륙의 블록화 시도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대립하고 있다. 2011년 4월 28일 페루 리마에서는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가 참여한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ífico)이 창설되었다. 그리고 태평양동맹 제2차 정상회담은 2011년 12월 4일 멕시코의 메리다에서 개최되어 ‘메리다 선언’을 채택했다. 태평양동맹에 참여한 4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거나 준비하는 나라들이다. 태평양동맹 2차 정상회담과 같은 기간에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해 국가공동체’(Comunidad de Estados Latinoamericanos y

Caribeños, 이하 CELAC) 정상회의가 열렸다. CELAC은 미주기구처럼 중립을 표방하고 국가들 간 대화와 중재를 증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미주기구와의 대립은 불가피할 것이다. 2008년 브라질에서 결성된 남미국가연합(UNASUR)이 남미 국가들의 자율성과 자결권을 위한 것이었다면 CELAC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를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를 배제했다는 점에서 1960년대부터 계속되어온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의 대 라틴아메리카 정책 기조가 ‘실력’ 과 ‘매력’ 을 겸비한 ‘똑똑한 힘’ (스마트 파워)의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은 여전히 매력으로 위장된 완력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 파워라는 개념이 21세기의 권력은 더 이상 행위자의 속성이나 보유자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관계적 맥락’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0여 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은중 —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교수